"마음껏 공부시키게 해 달라"

고2 학업성취도 하락… 교장들 '무너진 실력광주' 개선 촉구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지난해 전국 최고였던 광주지역 고교 2학년의 주요 과목 학업성취도가 크게 하락하자 일선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평가를 치른 고2는 내년 수능을 치러야 하는 예비수험생이어서 학부모들도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

광주지역 학교장들은 시교육청의 인성·실력을 갖춘 인재육성책에 공감하지만, 현실로 확인된 학력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정책의 궤도수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건강권과 자율존중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해온 고교의 방과후 자율학습과 심화학습, 보충수업 등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9일 전국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72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광주 고2 학생들의 학력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국어의 경우 90.4%, 수학은 87.8%, 영어는 90.7%였다. 타 시도와 이를 비교하면 국어는 2위, 영어는 4위, 수학은 5위를 기록했다.

광주 고교 2학년들은 지난해 시험에서는 국·영·수 과목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었다.

고교 교장들은 "이같은 결과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실력저하가 드러난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고 교장은 "시교육청의 교육시간에 대한 규제가 늘면서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절대 학습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결과"라며 "학생들의 미래가 걸린 만큼 교사들이 마음껏 가르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B고 교장은 "학교에 학습 자율권을 보장하는 등 면학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현재의 환경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시교육청은 휴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자율학습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학교의 주인인 학생들이 휴일에 도서관을 전전해야 하는 이유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교육현실을 인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모씨(45)는 "장래가 학력에 의해 결정되는 냉혹한 현실에서 가장 기본적인 학력향상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번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특정과목 문제풀이, 보충수업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주시교육청은 평가에 맞춰 파행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집방식으로 진행돼야 하고, 시도교육청의 평가와 연계시키는 폐단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눔으로 하나되는 사랑의 온도탑

29일 오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열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희망 2013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에서 참가자들이 사랑의 열매 풍선을 날리고 있다. 올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은 지난해 모금액 24억1000만원보다 1억7000만원 늘어난 25억8000만원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임성훈 나주시장 20억 수수 의혹

검찰, 미래산단 참여 업체서 돈 받은 혐의 수사

임 시장측 "불법 없었다"

임성훈 나주시장이 나주미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투자업체에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산단 조성 과정에서 임 시장의 혐의가 포착돼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미래산단은 투자업체가 임 시장 부인이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업체의 회사채 30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2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임 시장이 산단 참여업체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대가성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말 투자자문회사, 시행사, 시공사, W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으며, 조만간 주요 관련자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는 안 한 상태"라며 "(지금까지 조사에서)비리가 있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나주미래산단 조성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전 기업유치팀장은 이미 사표를 제출해 그 배경에도 의문이 일고 있다.

그러나 임 시장 측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나주시 관계자는 "미래산단에 대한 시공사 선정 등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 시장의 주장"이라며 "검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주시는 그동안 2000억원에 이르는 미래산단을 추진하면서 공모절차와 제안서심사 과정을 무시한 것은 물론 자문업체에 통상적인 수수료의 2배를 지급해 논란이 됐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손영철기자 ycson@

수천만원 받은 혐의 홍이식 화순군수 조사

29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홍이식 화순군수가 지난해 재보궐선거 전 복수의 건설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군수는 지난 9월 광주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금품을 건넨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금품의 성격을 파악한 뒤 홍 군수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각에서 이 사건이 종결됐다는 소문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슨 명목으로 돈이 오갔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형배 항소심도 80만원

광주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29일 의정보고회 등에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민 구청장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유지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안타까운' 성매매 장애여성

두차례 구조 불구 본인 선택은 업소로

지적장애 3급의 성매매 여성이 경찰과 여성단체, 검찰 등에 의해 2차례나 구조됐으나 결국 업소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광주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환)는 29일 "조직폭력배가 운영하고 있는 업소에서 일했던 지적장애 3급 성매매 여성 A(28)씨를 지난달 15일 강원도 원주의 성매매업소에서 발견한 뒤 구조해 여성단체에 인계했으나 이후 A씨가 스스로 원주의 성매매업소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앞서 업소를 탈출한 다른 여종업원의 제보로 경찰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구조됐으나 휴대폰을 찾으러 업소를 찾았다가 업주인 콜박스파 조직원 백모(44)씨 등의 설득으로 다시 성매매를 해왔다.

이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9일 A씨를 구조하기 위해 업소를 압수수색했으나 A씨는 선불금 1000만원을 내준 원주의 성매매업소로 간 뒤였다. 검찰은 강원도 원주에서 A씨를 찾아냈지만 그녀의 선택은 '가족같이 대해주는' 성매매업소였다. 검찰은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이 모두 기각하자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어렵사리 구조했는데 불법 성매매업소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A씨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씁쓸해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개별 납품업체도 원전 검증서 위조

광주지검, 수사 확대

검증 대행업체는 물론 개별 납품업체까지 원전 부품 검증서를 위조한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원전 부품 검증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29일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이미 구속된 K사 대표 이모(35)씨 외에 개별 납품업체, 다른 대행업체 등도 검증서를 위조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드러난 위조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혐의가 확인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37개 품목 7682개 부품 외에 53개 품목 919개 부품이 추가로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울진 3·4호기와 영광 3·4·5·6호기에 납품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납품업체는 1차로 발표된 8곳, 추가로 밝혀진 2곳을 포함해 모두 10곳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성폭행범 신고" 돈뜯은 60대 女 쇠고랑

쌍나팔

○…대기업 회사원인 지인을 유혹해 유사성행위를 한 뒤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며 1억원 이상의 돈을 뜯어낸 '간 큰' 60대 여성이 공동공갈 혐의로 경찰에 구속.

○…29일 군산경찰에 따르면 민모(여·61)씨는 지난달 9일 군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회사원 A(47)씨 등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으며 A씨와 유사성행위를 한 뒤 함께 있던 장모(45)씨와 짜고 성폭행범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한 달간 1억200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A씨는 직장을 잃게 될까봐 돈을 건넸다가 민씨의 요구가 계속되자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

/군산=박금석기자 nogusu@